

고창(高敞)의 후삼국시대 전통과 신시대의 교차점에서

윤태양*

목 차

- | | |
|--|------------------------------|
| 1. 머리말 |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 |
| 2. 「방등산가(方等山歌)」 속의
시대상과 고창의 항전 | 碑銘)」을 통해 본 고창 |
| 3. 후삼국 정립(鼎立) 이후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방등산가(方等山歌)」와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혜거국사비명)」을 근거로 후삼국시대 고창(高敞)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자 중에서는 「방등산가」의 내용이 조금 더 이른 시기의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방등산가」는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의 분류를 따라 백제 속악(俗樂)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고, 배경 설화에 보이는 지명인 ‘장일현(長日縣)’을 장성군(長城郡)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초서체 ‘사(沙)’자와 ‘일(日)’자의 자획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오기(誤記)이고, 지명의 등장 시기와 군현의 위격 등을 고려할 때 「방등산가」는 장사현과 관련된 노래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볼 때 「방등산가」의 배경은 견훤(甄萱)이 892년 무진주(武珍州)를 점령하고 북상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고창 지역이 견훤 세력에 맞서 항쟁하던 시기의 후반기에 지어진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 소속 기관 없음, E-mail: woojoomunji@naver.com

이어서 『혜거국사비명』에서는 922년 선운사(禪雲寺)에서 선불장(選佛場)을 열 때 활동한 혜거국사(惠居國師) 지□(智□)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장사현의 중심적 역할을 조금 더 북쪽으로 옮기는 등, 오월(吳越)과의 교통이 성립하여 있던 부안만 방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혜거국사비명』에서 경애왕(景哀王)이 지□를 초청한 데 혜거가 응하여 옮겨갔다고 보았지만, 시대적 정황으로 보아 지□는 경애왕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929년까지 선운사에 머물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를 머물게 하는 등 북쪽의 부안만 일대에 무게를 실으며 고창 지역을 안정시키려 한 후백제 정권의 노력은, 이후 고려시대에도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대 고창현(高敞縣)이 고부군(古阜郡) 산하로 넘어가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고부군 산하 장덕현(章德縣)의 감무(監務)가 고창현을 겸임한 것은 그러한 변화의 결과였을 것이다.

주제어 : 고창, 『방등산가(方等山歌)』,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 후백제, 혜거국사(惠居國師) 지□(智□), 선운사(禪雲寺)

1. 머리말

우연히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살피던 중 『방등산(方等山)』이라는 노래[이하 『방등산가(方等山歌)』]의 존재를 접했다. 그 기사에는 ‘장일현(長日縣)’이라는, 필자가 보지 못했던 지명이 있었다. 이 지명은 그 밖에 기사의 원전인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또 이 계통의 기사를 인용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지명은 바로 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잠정적으로 장성군으로 비정한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했지만, ‘일(日)’과 ‘성(城)’을 어떻게 상통한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후술하겠지만, 지명이 등장한 시기와 지역의 위계 문제를 살피면서 필자는 더욱 이 비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 가지 더 의문스러웠던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 원전이 되는 『고려사』 악지에서 이 가요가 등장한 배경 시기를 “신라 말(新羅末)”로 명시하고 있음에도¹⁾ 이를 백제 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한 가요로 보는 견해가 더러

1) 이에 따라 이 노래를 신라 가요로 본 견해는 金思燁, 1956, 『三國時代文學』, 『改稿

보인다는 것이었다.²⁾ 이는 『고려사』 악지에서 이 가요를 ‘삼국속악(三國俗樂)’ 가운데 ‘백제’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서술이 후백제와 관련된 것임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는 설명이 제시된 바 있었다.³⁾ 이에 대한 반론의 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방등산가」의 배경적 상황이 백제 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논지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뒤집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 일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던 중, 방등산과 인접한 또 다른 지역으로 고창(高敞) 지역에 ‘장사현(長沙縣)’이라는 지명이 있음을 되새기게 되었다. 이 지명에 대해서도 ‘일(日)’과 ‘사(沙)’의 연결고리는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명의 등장 시기와 위격의 문제는 깔끔히 해결하여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이어 고창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인 단서를 찾아 나가던 중,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이하 「혜거국사비명」)에 등장하는 선운사(禪雲寺)가 고창에 위치한 사찰로 비정됨을⁴⁾ 알게 되었다. 이 「혜거국사비명」은 922년의 미륵사(彌勒寺) 개탑(開

國文學史』, 正音社, 145쪽·188쪽; 趙潤濟, 1958, 「鄉歌時代」, 『韓國詩歌史綱(訂正版)』, 乙酉文化社, 75쪽; 尹榮玉, 1980, 「[三] 不傳詩歌의 考察」,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275-276쪽; 趙潤濟, 1987, 「形成時代(上古-後期-文學)」, 『韓國文學史』(3권), 探究堂, 53쪽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신라 말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본 견해로 長城郡史編纂委員會, 2001, 「제2편 역사」, 『長城郡史』, 장성군사편찬위원회, 140-141쪽이 있다.

- 2) 崔常壽, 1953, 『國文學事典』, 東星文化社, 113쪽 ‘방등산곡(方等山曲)’ 조목·116쪽 ‘백제가요(百濟歌謠)’ 조목; 白鐵·李秉岐, 1981(初出 1957), 「三國時代의 文學」,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55-56쪽; 李鐘出, 1963, 「山有花歌小考」, 無涯梁柱東博士 華誕 紀念論文集 發刊委員會, 『無涯梁柱東博士 華誕 紀念論文集』, 431쪽의 각주 2); 趙載勳, 1971, 「百濟歌謠의 研究」, 『百濟文化』 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3-14쪽; 趙載勳, 1996, 「方等山歌 研究」, 『韓國詩歌의 通時的研究』, 國學資料院; 도수희, 2004, 「백제가요 소개」,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201쪽; 구중희·박동록·이남규·임운수·정호완, 2017, 「방등산가(方等山歌)」, 『스토리텔링 백제가요』, 서경문화사, 229-230쪽.
- 3) 趙東一, 1982, 「세제 시대: 중세전기문학 제1기」,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17쪽; 장지연, 2017,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속악(俗樂) 편집의 특징과 정치성」, 『국문학연구』 35, 국문학회, 131쪽. 그 밖에 신라 말의 노래라고 보면서도 옛 백제 지역에서 불린 노래이기 때문에 백제 가요로 분류되었다고 보거나(서금석·이성원, 2013, 『高麗史』 「樂志」에서 보이는 諸 女人相, 『역사학연구』 51, 호남사학회, 55-56쪽; 조인성, 2018, 「통일에서 분열로 -후백제의 성립 배경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2, 新羅史學會, 12-13쪽), 설화의 배경은 후백제 시대의 상황일 것으로 보면서도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권이 불확실했다는 견해에 따라 백제 가요라는 분류를 유지하여 본 견해가 있다(安東柱, 1992, 「百濟文學의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5쪽; 安東柱, 1998, 「百濟 辭不傳 歌謠 研究」, 『古詩歌研究』 5, 한국시가문화학회, 344쪽).
- 4) 許興植, 1986, 「葛陽寺 惠居國師碑」,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588쪽.

塔) 의례가 후백제의 미륵 신앙을 말하여 준다고 하여 많이 인용되었지만,⁵⁾ 정작 혜거국사(惠居國師) 지□(智□)가 자리하였던 선운사의 위치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듯하였다. 그렇기에 여전히 이 비문은 자료로서 새롭게 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두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 후삼국시대의 고창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시공간적 배경 내에서도 복수의 자료를 되살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시대는 다발적인 세력의 흥기와 잦은 전란으로 인해 영세한 문헌에 비하여 상당한 격동이 있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주목한 두 자료가 이 시대를 비추어주는 창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면, 이 자료 하나하나가 고립된 모나드(monad)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읽혀 줄 수 있는 상호 작용하는 자료들로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두 자료의 공간적인 고창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2009년 고창군에서 발간한 『고창군지』에는⁶⁾ 아예 후삼국시대라는 단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서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후삼국시대에 대한 서술은 고려의 통일에 이르는 전국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을 뿐, 고창이라는 지역이 후삼국시대에 겪은 변화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삼국시대 고창의 상황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의 위치를 설정하는 일은, 새로운 연구의 분야를 연다고도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상기한 「방등산가」와 「혜거국사비명」을 열린 창으로 삼아 후삼국시대 고창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자료 가운데 후백제가 일정한

5)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6-592쪽; 崔洪奎, 1995, 「高麗時代 水原地方의 金石文」, 『鄉土史研究』 7,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쪽; 崔聖銀, 1997,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 국립중앙박물관, 4쪽; 조인성, 2007,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51-255쪽; 金壽泰, 1999,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5, 韓國古代史學會, 280-284쪽; 金壽泰, 2000, 「甄萱政權과 佛教」,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후백제와 건원』, 서경문화사, 60-66쪽; 진정환, 2010,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東岳美術史學會, 163-164쪽; 李道學, 2014, 「後百濟의 全州 遷都와 彌勒寺 開塔」, 『한국사연구』 165, 한국사연구회, 19-24쪽; 辛호철,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4, 韓國古代史學會, 19-20쪽; 張日圭, 2014,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韓國古代史研究』 74, 韓國古代史學會, 116-117쪽; 진정환, 2021, 「후백제 주도 세력의 변화와 그 영향」, 『新羅史學報』 51, 新羅史學會, 62-63쪽; 金성배, 2021, 「後百濟 건원정권의 禪僧 정책」, 『全北學研究』 4, 전북학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97-100쪽 등.

6)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제2편 역사」, 『고창군지』 (상), 고창군.

영역을 갖추고 고려·신라와 정립(鼎立)한 922년 전후의 시점을 비추는 『해거국사비명』보다는, 아직 “신라 말”의 상황을 말하는 『방등산가』의 역사적 시점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2장에서 『방등산가』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고찰하고, 3장에서 『해거국사비명』에서 엿보이는 고창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이 두 자료가 반영하는 고창 지역의 상황을 되살핌을 통해, 후삼국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고창 지역이 겪은 역사적 변화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이것이 지역사를 살피는 한 시각으로서, 후삼국시대 전북 지역의 역사적 동향을 해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방등산가(方等山歌)」 속의 시대상과 고창의 항전

앞서 언급하였듯 후삼국시대는 한국사의 여러 장기 왕조가 존속한 시기 가운데 존재하는 비교적 짧은 시기이다. 그렇기에 그 짧은 시기 내에서, 정사서(正史書)에서 고창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정사서를 벗어나 눈을 돌리면, 당시 고창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하나의 자료가 있음이 눈에 띈다. 바로 『방등산가』라는 노래이다.

『방등산(方等山)』. 방등산은 나주(羅州)의 속현(屬縣)인 장성(長城)의 경계에 있다. 신라 말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에 의거하였으니, 양가(良家)의 자녀가 여럿 잡혀갔다. 장일현(長日縣)의 여자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지어 그 지아비가 곧바로 구하러 오지 않음을 풍자하였다.⁷⁾

반등산(半登山). 현(縣)의 동쪽 5리(里) 거리에 있다. 진산(鎭山)이다. 신라 말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에 의거하였으니, 양가의 자녀가 여럿 잡혀갔다. 장일현의 여자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지어 그 지아비가 곧바로 구하러 오지 않음을 풍자하였다. 곡의 이름을 「방등산」이라고 하였는데, ‘방등(方等)’이라는 말이 바뀌어

7) 『고려사(高麗史)』 권71, 악(樂)2 삼국속악(三國俗樂) 백제(百濟) 「방등산(方等山)」, “「方等山」. 方等山, 在羅州屬縣長城之境. 新羅末, 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子女多被擄掠. 長日縣之女, 亦在其中, 作此歌, 以諷其夫不卽來救也.”

‘반등(半登)’이 되었다. 장일현은 곧 장성이 아닐까 한다.⁸⁾

이 노래에 등장하는 방등산은 오늘날의 고창·정읍·장성의 경계에 위치한 방장산으로 비정된다.⁹⁾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의 노래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 노래는 신라 말에 도적에 의해 사로잡힌 장일현의 여자가 그 남편을 풍자하며 지은 노래라고 한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은 산의 이름을 달리 할 뿐 『고려사』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장일현’이라는 지명이다. 이 ‘장일현’이라는 지명은 노래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신라 말에는 물론, 고려·조선시대에도 일절 보이지 않는 지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15세기에도 의문스러웠던 듯, 『동국여지승람』의 저자 또한 확인하지는 못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장성으로 그 지명을 비정하였다. 이는 아마도 ‘장일(長日)’이라는 지명과 ‘장성(長城)’이라는 지명에서 서로 ‘장(長)’이라는 글자가 상통하며, 『동국여지승람』이 참조하였을 『고려사』에서 방등산이 “장성의 경계에 있다[在 … 長城之境]”고 한 데 이끌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장성’이라는 지명은 이 노래의 배경인 신라 말을 지나, 고려 대에야 처음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백제 때부터 이어진 고시이성(古尸伊城)이라는 지명을 신문왕(神文王) 5년(685) 무렵 고시이현(古尸伊縣)으로 고쳐서 쓰다가, 경덕왕 대에 감성군(岬城郡)으로 승격시키면서 이름을 바꾸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고려 대에 이곳의 지명을 장성으로 고쳤지만, 경덕왕 대 이후 장성(감성)의 위격은 군(郡)이었다.¹¹⁾ 다시 말해, 백제 대, 나아가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역사적으로 ‘장성’이라는 명칭과 ‘현’의 위격은 공존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장(長)’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하여 ‘장일현’을 장성으로 비정하는 안은 실제로는 그 기반이 약하다고

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전라도(全羅道) 고창현(高敞縣) 산천(山川) 반등산(半登山) “半登山. 在縣東五里. 鎮山. 新羅末, 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子女多被掠. 長日縣之女, 亦在其中, 作歌以諷其夫不卽來救. 曲名謂之「方等山」, 方等語轉爲半登. 長日縣疑卽長城.”

9) 趙東一, 1982, 앞의 글, 앞의 책, 117쪽; 趙載勳, 1996, 앞의 글, 앞의 책, 194쪽; 長城郡史編纂委員會, 2001, 「제1편 총론」, 앞의 책, 16쪽 등.

10)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6, 지리(地理)3 신라(新羅) 감성군(岬城郡) “岬城郡, 李百濟古尸伊縣, 景德王改名. 今長城郡. 領縣二”; 李文基, 1992, 「九州體制的 成立과 變遷」, 『國史館論叢』 20, 國史編纂委員會, 17-19쪽 참고.

11) 『고려사』 권57, 지리2, 전라도 영광군(靈光郡)조 장성군(長城郡) “長城郡本百濟古尸伊縣, 新羅景德王, 改爲岬城郡. 高麗, 更今名, 來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장(長)’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또 다른 지명으로 인근에 위치했던 ‘장사현(長沙縣)’이라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사현은 신라시대 무주(武州) 무령군(武靈郡) 산하의 지명으로, 현재의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에 비정된다.¹²⁾ 『동국여지승람』의 비정과 같이 ‘장일현’이 장성을 가리킨다면, 이는 ‘도적’들이 내륙 방향 동남쪽을 약탈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필자가 언급한 ‘장사현’에 주목한다면, 이는 ‘도적’들이 해안 방향 서북쪽을 약탈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곧 지명을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이 보이는 시대상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초서로 쓰였을 때 ‘일(日)’자와 ‘사(沙)’



그림 1. 태안 마도 2호선
0524-F4-목간의 “장사현
(長沙縣)” 부분

자의 형태이다. ‘사(沙)’는 초서로 쓰는 경우 가운데 좌변의 ‘礻’를 쪽 그어내려 한 획으로 잇고 이를 우방의 ‘少’까지도 한 바퀴 돌려 감는 형태로 획을 연결하여서 간소화해 쓰기도 했는데, 예컨대 태안 마도 2호선 0524-F4-목간에서 쓰인 ‘장사현(長沙縣)’의 필획에서 이러한 형태가 보인다(<그림 1>).¹³⁾ 이러한 형태는 해서체로 쓰인 ‘일(日)’자와도 자형이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초서체로 쓰인 ‘일(日)’자의 서자(書字)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송탁순화각첩(宋拓淳化閣帖)』가상각본(賈相刻本) 권 9의 적봉첩(適奉帖)에서 보이는 초서체 ‘일(日)’자에서는 ‘일(日)’의 첫 획과 2획을 잇고, 또 2~4획을 마찬가지로 하나로

연결하여 한 바퀴 돌려 감아 내리는 형태로 썼음이 보이는 것이다(<그림 2>).¹⁴⁾

12) 『삼국사기』 권38, 지리5 백제 무령군(武靈郡) “武靈郡, … 領縣三. 長沙縣, 李百濟上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지명 비정은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2012,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349쪽의 각주 277) 참고. 장사현은 이후 조선 태종(太宗) 17년(1417) 무송현(茂松縣)과 합쳐져 무장현(茂長縣)이 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무장현 건치연혁(建置沿革) “茂松縣 … 長沙縣 … 本朝太宗十七年(1417), 合兩縣, 改今名,”

13) <그림 1>의 출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db.history.go.kr/>) > ‘한국목간자료’ > ‘태안 마도’ > ‘태안 마도2-1’ > ‘원문이미지’ 검색 결과(검색일: 2023.12.10.).

14) 『송탁순화각첩(宋拓淳化閣帖)』 권 9, 진(晉) 왕헌지(王獻之) 1, 적봉첩(適奉帖).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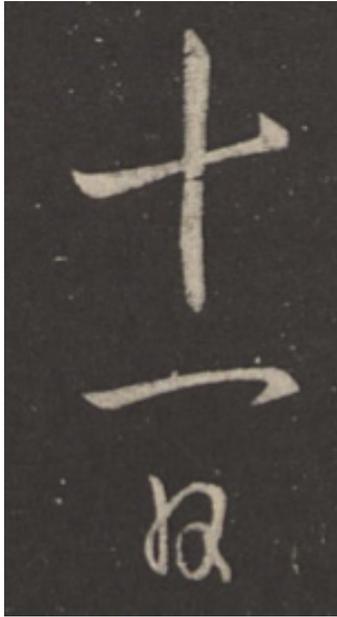


그림 2. 『송탁순화각첩
(宋拓淳化閣帖)』 가상각본
(賈相刻本) 권 9 「적봉첩
(適奉帖)」의 “십일일(十一日)” 부분

이 점을 고려하면, 「방등산곡」을 언급한 기록 이외에 일절 등장하지 않는 ‘장일현’이 등장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게 해명된다. 곧 『고려사』 악지의 원전 자료에서 초서로 쓰인 ‘장사현(長沙縣)’의 가운데 글자 ‘사(沙)’를 초서 자형이 유사한 ‘일(日)’로 착오하여 ‘장일현(長日縣)’으로 잘못 읽으면서, 전후의 역사서에 유례가 없는 지명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500여 년 전 『동국여지승람』의 막연한 추측에 머물러 ‘장일현’을 장성으로 비정하더라도, ‘일(日)’과 ‘성(城)’이 어떻게 서로 상통하는지에 대해 마땅한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 온 상황을 피하여갈 수 있다. 또한 ‘장일현’이 실제로는 ‘장사현’이었다면, 앞서 언급한 지명의 시대성과 위격의 문제도 아래 <표 1>과 같이 자연스럽게 풀이된다.

그렇다면 「방등산가」를 신라 말이 아닌 백제 대의 가요로 보는 견해는 자연히 설득력을

잃는다. 백제 대에는 고려 대에 등장한 지명인 ‘장성군’도, 경덕왕의 지명 개정 이후에 등장한 지명인 ‘장사현’도 없었고 고시이성과 상로성(上老城)만이 존재했을 것이므로, ‘장일현’과 연관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지명을 정비된 신라의 지명에도 없고 그 이전 백제의 지명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후백제 때에 잠시 쓰인 지명이라고 보는 추정도¹⁵⁾ 따르기 어렵다. 더 이상 ‘장일현’은 ‘찾을 수 없’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사』는 1451년 편찬되었으므로,¹⁶⁾ ‘장일현’이 장성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장일현’이 ‘현(縣)’으로 표기된 것은 장성의 위격이 현(縣)이었던 조선시대 당대의 관점에서 이 노래에 대한 기록이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방등산가」가 조선 태종 2년(1402) 궁중에서

2>의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전자도서관(<https://nanet.go.kr/>) > ‘宋拓淳化閣帖賈相刻本, 冊1-11’ 검색 결과 > ‘vol.9’ > 권별 쪽수 23쪽(온라인 제공 전체 합본 기준 581쪽)(검색일: 2023.10.9.).

15) 趙載勳, 1996, 앞의 글, 앞의 책, 189-190쪽.

16) 『고려사』 권1,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 “景泰二年(1451)八月二十五日,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等上箋.”

표 1. 「방등산가」의 배경과 장성군·장사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합치 여부

	장성군(長城郡) [갑성군(岬城郡)](A)	장사현(長沙縣)(B)	「방등산가」의 배경 ("신라 말")
'현(縣)'이었던 시기	신문왕 5년(685) 전후 ~경덕왕 16년(757) 이전 [※ 고사이현(古尸伊縣)]	신문왕 5년(685) 전후 ~태종 17년(1417) 이전	B와 부합
'장(長)'이 포함된 지명이 등장한 시기	고려 이후 [“高麗, 更今名”]	경덕왕 16년(757)	B와 부합

공연할 곡으로 언급된 일이 보이므로¹⁷⁾ 그 이전에 궁중에서 악보 등이 정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조의 원전 기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을 시기로는 고려 내에서 음악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던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우왕(禑王, 재위 1374~1388) 대가 유력하다고 한다.¹⁸⁾ 한 발 더 나아가자면,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조에서는 「동경(東京)」에 대해 “곧 계림부이다[卽鷄林府].”, 「목주(木州)」에는 “지금은 청주(淸州)의 속현이다[今淸州屬縣].”, 「연양(延陽)」에는 “연산부이다[延山府].”라고 한 주석이 붙어 있다.¹⁹⁾ 연산부는 공민왕 15년(1366) 승격된 지명이고²⁰⁾ 계림부는 조선 태종 15년(1415) 폐지된 지명이므로²¹⁾ 그와 같이 지명에 대해 주해한 연대를 좁혀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서 삼국속악조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점을 공민왕~우왕 대로 본 추정과도 대체로 맞물리는데, 구태여 그 형식으로 옛 지명을 남긴 채 그에 대해 주석을 붙이는 방식을 따른 점에서 주석을 붙일 원전의 형성은 그보다도 더 이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²²⁾

특히 백제 속악의 경우 실제 백제의 중심지이던 사비와 웅진 일대와 관련된 노래가 전혀 없는 점과 고려에서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왕조 건국의 최대의

17)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 태종(太宗) 2년(1402) 6월 5일 정사(丁巳) “臣等謹於兩部樂, … 具列于左. … 一品以下大夫士公私宴樂. … 四味及五齏, 「方等山」.”

18) 장지연, 2017, 앞의 논문, 127-128쪽.

19) 『고려사』 권71, 지 25 악 2 삼국속악 신라 「동경」; 「목주」; 고구려 「연양」.

20) 『고려사』 권58, 지 12 지리 3 북계(北界)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 영주(寧州) 연주(延州) “延州, … 恭愍王十五年(1366), 陞延山府.”

2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50, 지리지 3 경상도(慶尙道) 경주부(慶州府) “慶州 … 忠烈王三十四年戊申(1308), … 改稱雞林府. 本朝太宗十五年乙未(1415), … 改爲慶州府.”

22) 다만 고구려 속악으로 보이는 「내원성(來遠城)」에(『고려사』 권71, 지 25 악 2 삼국속악 고구려) 대해서는 예종(睿宗) 12년(1117) 고려에 귀부해 온(『고려사』 권14, 세가 14 예종 12년 3월 신묘(辛卯)) 의미가 중시된 점에서(장지연, 2017, 앞의 논문, 132쪽) 그 상한선 또한 그 이후로 설정할 필요는 있다.

공업이자 정통성으로 내세웠던 점에서 백제 때가 아닌 고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방등산가』는 신라 말기의 ‘도적’에 의한 혼란을 고려 태조(太祖)가 타개하고 안정시켰다는 공덕을 추앙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²³⁾ 그와 같이 본다면 『고려사』 악지의 삼국속악조는 『고려사』가 편찬되기 이전 시대에 과거를 회고하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쓰였다고 하여 그 원전의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방등산가』를 백제 가요로 보는 근거는 실증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에 가까운데, 방등산이 옛 백제의 땅이었고, 노래의 내용이 신라의 것과 사뭇 다르며, 가요의 이름이 기타 백제 가요의 이름과 닮았고,²⁴⁾ 그 노래가 백제 때의 기근과 징발이 잦았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²⁵⁾ 다른 논저를 참고하면 가사가 전하지 않는 이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은 여인이 화자가 된 노래라는 것인 듯하고, 백제 가요의 이름과 닮았다는 것은 산의 이름을 딴 노래라는 것인 듯하다.²⁶⁾ 그러나 방등산은 당연히기도 신라의 땅이기도 하였으며, 여인이 화자가 된 신라의 노래로 희명(希明)의 이른바 『[도(禱)]천수관음가(千手觀音歌)』라는 반례가 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아예 이국(異國)의 산인 미미나리 산[耳成山]·우네비 산[畝傍山]을 소재로 노래를 부르다가 오해를 사 곤혹을 치른 신라 사절의 일화를 전하기까지 하는 것을²⁷⁾ 고려하면 산을 소재로 노래하였으므로 백제 가요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도 설득력이 없다. 도적의 발생에 대해 백제 때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주장 또한, “『三國史記』의 … (중략) … 記錄을 보면 신라말이 얼마나 혼란의 극에 달하였나를 쉽게 알 수 있다.”²⁸⁾ 논자 스스로의 말로 반박될 수 있다. 결국 『방등산가』가 백제 가요라는 근거는 모두 불확실한 기반 위에서 서 있으며, ‘장일현’의 지명이 상기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이상 『고려사』의 ‘백제’ 가요라는 분류는 ‘후백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라 말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이고, “신라 말”의 여인이 “이 노래를 지었다[作此歌]”는 표현을 구태여 무시하고 이를 백제 때부터 전해진 속요(俗謠)로 볼²⁹⁾ 필요도 없다.

23) 장지연, 2017, 앞의 논문, 131쪽.

24) 趙載勳, 1971, 앞의 논문, 14쪽; 도수희, 2001, 앞의 책, 201쪽.

25) 趙載勳, 1996, 앞의 글, 앞의 책, 211-221쪽.

26) 趙載勳, 1996, 앞의 글, 앞의 책, 225-226쪽.

27)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3, 윤공천황(允恭天皇) 42년 11월조.

28) 趙載勳, 1996, 앞의 글, 앞의 책, 186쪽.

29) 趙載勳, 1971, 앞의 논문, 14쪽.

할 수 있는 무력이라는 조건을 생각할 때, ‘도적’의 후보로는 역시 이전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왔던 견훤(甄萱) 세력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³¹⁾ 익히 알려져 있듯, 견훤은 889년 무렵부터 신라의 서남 지역에서 거병하여³²⁾ 892년 무진주를 점령한 뒤³³⁾ 그 동남쪽 군현의 투항을 받았고,³⁴⁾ 900년에는 완산주에서 왕을 자칭하며 후백제를 건국하였다.³⁵⁾

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장사현을 비롯한 고창의 상황 또한 헤아려 볼 수 있다. 견훤이 무진주를 점령하고 그 동남쪽 군현이 투항한 이후, 고창 인근 동남쪽에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자리 잡고 또 북상하였다. 이 상황은 특히 고창 지역에서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인데, 무주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던 10정(停) 산하 조직인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뿐만³⁶⁾ 아니라 전주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던 거사물정(居斯勿停)³⁷⁾ 역시 방등산 일대가 점령되며 고창 지역과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창 지역 또한 견훤에게 투항할지, 그렇지 않으면 신라 산하에 남을지 고민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고창 일대는 여전히 전통의 질서를 고수하며 신라의 통치 아래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로 A군의 기사에서 보이는 ‘도적’이라는 표현이 눈에 밝힌다. 이러한 표현은 물론 대상이 정통성이 없는 무도한 존재임을 말하며, ‘도적’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 趙東一, 1982, 앞의 글, 앞의 책, 117쪽; 장지언, 2017, 앞의 논문, 131쪽.
 32) 申虬澈, 1993, 『甄萱政權의 成立』,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40-43쪽.
 33)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甄萱) “唐昭宗景福元季(892), 是新羅真聖王在位六季, … 於是, 萱竊有觀心, 嘯聚徒侶, 行擊京西南州縣. 所至響應, 旬月之間, 衆至五千人,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34)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眞聖王) 6년(892) “完山賊甄萱, 擄州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3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季(900), 新羅孝恭王四季也.”
 36) 『삼국사기』 권40, 직관(職官)3 무관(武官) 10정(停) “十停, … 六曰未多夫里停, 衿色黑.” “未多夫里停”은 武州 未冬夫里縣(玄雄縣)에(『삼국사기』 권36, 지리3 신라 무주 “武州, … 領縣三. 玄雄縣, 李百濟未冬夫里縣, 景德王改名. 今南平郡.”) 위치한 것으로 비정되며(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61쪽), 현재의 나주시 남평읍으로 여겨진다(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2012, 앞의 책, 340쪽의 각주 214)).
 37) 『삼국사기』 권40, 직관3 무관 10정 “十停, … 三曰居斯勿停, 衿色靑.” “居斯勿停”은 全州 任實郡 居斯勿縣(靑雄縣)에(『삼국사기』 권36, 지리3 신라 전주 임실군 “任實郡, … 領縣二. 靑雄縣, 李百濟居斯勿縣, 景德王改名. 今巨寧縣.”)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며(末松保和, 1954, 앞의 글, 앞의 책, 361쪽), 현재의 장수군 변암면으로 비정된다(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2012, 앞의 책, 339쪽의 각주 208)).

나아가 「방등산가」의 화자인 여인 또한 ‘지아비’로 대변되는 장사현 방향에서의 무기력한 대응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그 이면에 장사현에서 ‘도적’을 물리치고 자신을 구출하기를 바라는 ‘정상적’ 상황으로의 회귀를 염원하고 있음이 암시되는 것이다.³⁸⁾

둘째로 약 30년 전 신라 왕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금석문에 등장하는 장사현의 모습을 언급할 수 있다. 「무주 가지산 보림사 보조선사 영탑비명(武州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 靈塔碑銘)」에 따르면 신라 헌안왕은 859년 6월 무주 황학난야(黃鶴蘭若)에 머물던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을 왕경에 모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사절로 장사현의 부수(副守) 김언경(金彦卿)을 보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859년 10월 그를 장흥의 가지산사(迦智山寺)로 옮겨 가게 한 뒤 860년 2월 그곳의 사찰을 새롭게 장엄하고 철불(鐵佛)을 조영하였다.³⁹⁾ 곧 신라 왕실이 무주 및 장흥의 가지산에 연락하는 창구로서 장사현을 이용한 것인데, 장사현은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인 남해안이나 영산강 하류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장사현의 김언경을 매개로 한 것은 물론 체징에 대한 친화적 태도와 독실한 신심을 지녔을 김언경이라는 개인의 역할 또한 크게 작용했겠지만, 체징과의 왕래를 이어 나가고 그곳의 부수 김언경이 철 2500근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산사의 중창에 대해 제반 조건을 지원하는 데 적잖이 기여하였을 장사현에 대한 신라 중앙의 신뢰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도적’의 거점이 약탈 이후 장사현의 여인이 노래를 만들던 시점에서도 여전히 방등산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일 고창현이 이때 견훤 세력에 동조하여 투항한 상황이었다면, ‘도적’의 거점 또한 방등산보다는 고창현이 있는 서쪽으로 더 나아갔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고창현이 수세에 몰려 장사현까지 번진 위기를 구원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음

38) 「방등산가」의 또 다른 내적 의도에 국가를 빚댄 풍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내’는 백성을, ‘아내를 구하러 오지 않은 남편’이 국가를 대변한다는 견해를(서금석·이성원, 2013, 앞의 논문, 56쪽) 참고할 수 있다.

39) 「무주 가지산 보림사 보조선사 영탑비명(武州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 靈塔碑銘)」, “時大中十三禩(859), … 憲安大王即位之後年也. 大王聆風仰道, 勞于夢魂, 願闢禪扉, 請入京轂. 夏六月, 敎遣長沙縣副守金彦卿, 賈茶藥迎之. 冬十月, 敎又遣道俗使靈巖郡僧正連訓法師, 奉宸馮瑄等, 宣諭綸旨, 請移居迦智山寺. 遂飛金錫, 遷入山門. … 宣帝十四年(860)仲春, 副守金彦卿, 夙陳弟子之禮, 嘗爲入室之賓. 減清俸, 出私財, 市鐵二千五百斤, 鑄盧舍那佛一軀, 以莊禪師所居梵宇. 敎下望水里南等宅, 共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斛, 助充裝飭功德, 寺隸宣敎省.” “宣帝十四年”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정선용, 2023, 「신라 헌안왕의 가지산사 운영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探究』 43, 韓國古代史探究學會, 116쪽 참고.

에도, 여전히 ‘도적’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암시하여 준다.

따라서 당시 장사현은 무주 등 전남 일대를 점령한 뒤 방등산을 넘어 전북으로 진출하려던 견훤에 맞서 항쟁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방등산가」가 지어지던 시점에서는 이미 고창현은 장사현을 구원하지 못하여 방등산에서 장사현을 공격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등, 상당히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듯하다. 그러한 시대에 어둡고 짙은 그림자로서 자리하였던 후백제를 떼어놓고 이 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 노래를 ‘백제’의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항쟁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단서도 있다. 신라가 당시 후백제의 대두를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흥기로 인하여 해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적어도 897년 6월 효공왕이 즉위한 이후까지도 1차례 이상은 당에 사절을 파견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연대가 미상이기는 하나, 거타지(居陀知) 설화에 따르면 신라는 후백제 건국 이후에도 후백제의 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호위 병력을 붙여 당에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그 경유지로서 곡도(鵠島, 또는 골대도(骨大島))를 해양 거점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그렇다면 그 사절 파견 과정에서 장사현과 같은 신라 왕실과 연고가 깊은 해안 거점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더 이상 선·면의 차원에서 관리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든가 점적인 거점으로서 신라 사절의 왕래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장사현을 비롯한 고창 일대는 892년 이후 어느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견훤에 맞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다만 「방등산가」가 지어진 시점은 고창현의 방어 능력이 거의 무력화되고 장사현까지 방등산의 ‘도적’에 의해 약탈 대상이 되는, ‘신라의 고창’으로서는 암울한 후반기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멀지 않은 미래에 견훤에게 함락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방등산가」의 배경을 밝히는 작업은 당대의 색채를 살피는 데 중요한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892년부터 900년 사이 견훤의 행적과 복상 과정에 대해 자료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고창이라는 지역에서의 저항을 되새김을 통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투쟁을 거쳐 나가야 하였으며, 전북 지역 사회 또한 단순히 수동

40) 『동문선(東文選)』 권43, 표전(表箋)13 「양위표(讓位表)」, 참고.

41)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제2 진성여왕대 거타지(眞聖女王代 居陀知) “此王(眞聖王)代阿飡良貝王之季子也. 奉使於唐, 聞百濟海賊梗於津島, 選弓士五十人隨之. 舡次鵠島【鄉云骨大島.】, 風濤大作信宿俠旬. …”

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님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3. 후삼국 정립(鼎立) 이후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을 통해 본 고창

「방등산가」를 통해 9세기 말 당시 치열하고 처절하였던 장사현의 견훤에 대한 항쟁을 엿볼 수 있지만, 늦어도 900년 이전에 끝내 장사현을 비롯한 고창 지역은 견훤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이후 고창 지역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직접적으로 이 당시 고창 지역의 상황을 살피게 하는 기사는 찾기 힘들다. 다만 장사현의 부수 김언경이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채징을 후원하던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예를 염두에 둘 때, 선각대사(先覺大師) 형미(迥微)의 사례가 눈에 띈다. 그는 905년 무주(武州) 회진(會津)으로 귀국하여 무주의 지주(知州) 소판(蘇判) 왕공(王公) 지본(池本)의 권유로 월출산의 무위갑사(無爲岬寺)에 머물게 되었지만, 912년 8월 이후 수군을 이끌고 온 태봉(泰封) 정권에서 형미를 포섭하여 태봉으로 옮겨갔다고 한다.⁴²⁾ 비슷한 행적을 보인 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의 사례로 보아⁴³⁾ 이는 형미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었으며, 무주에서 후백제 정권에 호응하지 않는 이들이 태봉으로 빠져나간 예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⁴⁴⁾

물론 이는 당시 태봉의 수군 공세에 의해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형미

42) 「장진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영탑비명(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靈塔碑銘)」, “迺於天祐二年(905)六月, 返于武州之會津。此時, 知州·蘇判王公池本, 竊承大師纒諧捨筏·已抵平津, … 仍以那山無爲岬寺, 請以住持。… 至九年(912)八月中, 前主, 永平北須擬南征, 所以, 發舳艫, 親駟車駕。此時, 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傍, 武府逆鱗, 動衆於郊畿之場。此時, 大王聞大師近從吳越·新到秦韓, 匿摩尼於海隅·藏美玉於天表。所以, 先飛丹詔, 遽屈道竿。大師, 捧制奔波, 趨風猛浪, 親窺虎翼, 暗縮龍頭。… 其後班師之際, 特請同歸, 信宿之間, 臻于北岸 …”

43) 「개풍 오릉사 법경대사 보조혜광탑비명(開豐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銘)」, “迺於天祐五年(908)七月, 達于武州之會津。此時 … 大師來藏巖穴, 避烟塵, … 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 特差華介先詣, 禪扃奉傳詔書, 赴軍壁也。令大師效聆帝命, 寧滯王程, 及其方到柳營。便邀蘭殿, 留連再三付囑重疊, ‘寡人遽迴龍旆, 祇俯鳳儀。’ 大師難趨乘輿, 續起 …” 마멸된 부분 이하 경유의 행적을 추론하는 근거로는 김성배, 2022, 「高麗 건국기 太祖 王建의 禪僧 결연과 그 목적 -王建과 迥微·慶猷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42, 韓國古代史探究學會, 617쪽의 각주 31)이 상세하다.

44) 이때 태봉의 군사 활동은 당시 후백제의 선승(禪僧)에 대한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헤아려진다(張日圭, 2014, 앞의 논문, 132-133쪽; 김성배, 2021, 앞의 논문, 94쪽).

는 체징을 만나고 선종(禪宗)을 받들게 된 인물로서⁴⁵⁾ 가지산문의 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최종적으로 가지산문의 본산(本山)이 있는 전남 지역을 떠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⁴⁶⁾ 또한 905년 무렵 그 시대에 대한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영탑비명(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靈塔碑銘)」의 평가는 “유비(劉備)와 조조(曹操)의 시대보다도 어지러움이 심하여서 위로는 성주(聖主)가 없[亂甚於劉曹之代, 上無聖主]”⁴⁷⁾다는 것으로, 그가 궁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임에도⁴⁷⁾ 내려진 이러한 양비론적 평가로부터 그의 견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견훤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도 견훤에 대한 반감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존속했고, 그 가운데 가지산문으로 대표되는 불교계가 포함되어 있음은 향후 견훤 정권의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견훤 세력에게 치열하게 저항하던 고창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불안한 민심에 대해 견훤 정권은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그 일환으로서 주지하듯 「혜거국사비명」의 내용이 자주 인용되어 왔다.

건화(乾化) 연호를 쓴 갑술(甲戌, 914)의 봄, 우두산(牛頭山) 개선사(開禪寺)로 와 오심(悟心) 장로(長老)를 뵈고 부처께 귀의할 것을 청하였다. 장로께서 기뻐하며 머리를 깎이고 승복을 입혔으니 이 때 나이가 16이었다. 3년이 지나 금산사(金山寺)의 의정(義靜) 율사(律師)의 계단(戒壇)으로 나아가 구족계를 받았다. 이에 계율의 구슬이 밝게 빛나고 법(法)의 그릇이 깊고 맑은지라, 뒤옹박 신세[匏繫]가 되기를 몹시 꺼려 옷을 떨쳐 높이 일으켜서 널리 지식(知識)을 찾고 그 익한 수레[玄乘]를 더욱 깊이 탐구하였다. 용덕(龍德) 2년(922) 여름, 특별히 미륵사(彌勒寺)에서 탑을 여는 은혜를 입고 또 선운(禪雲)의 선불장(選佛場)으로 가 단(壇) 위에 올라 설법할 때에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이로부터 도(道)의 명예가 더욱 밝게 빛났으므로 책 꾸러미를 지고 오는 사람이 구름처럼 치달았다. 이때에 신라의

45)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영탑비명」, “遂乃斜登歧路, 直詣寶林, 謁體澄禪師. … 和尚雖云一見, 便似相知謂曰, ‘昔別稍遙, 今來何暮?’ 許令室室, 于茲敬禪宗 ….”

46) 이러한 결정이 갖는 무게는, 석연하게도 이에 이어 형미가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운까지 이어지면서 보림사가 크게 위축되고 고려 중기에는 가지산문의 주도권이 청도 운문사로 넘어간 일이(曹凡煥, 2008, 「新羅 下代 體澄禪師와 迦智山門의 개창」,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6-27쪽) 여실히 보여준다.

47) 崔炳憲, 1975,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韓國史學會, 23쪽.

경애대왕(景哀大王)께서 분황사(芬皇寺)에 주석하기를 요청하며 자색 비단과 거친 베로 짠 가사[屈眊], 전단향[梅香]과 귀한 그릇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천성(天成) 4년(929), 경순대왕(敬順大王)께서 스님께 영묘사(靈廟寺)의 법석(法席)으로 옮겨오도록 명령하였다. 계단(戒壇)을 쌓고 불탑(佛塔)을 꾸며 설법회(設法會)를 7일 동안 열었다. 천복(天福) 4년(939) 봄, 우리나라의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스님의 도덕(道德)을 흠모하여 대저 세 번 불러들였으나 몸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 (후략) …⁴⁸⁾

이에 따르면 혜거국사 지□는 914년 우두산 개선사에서 출가하여 917년에는 금산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922년에 미륵사 개탑을 기념함에 이어 ‘선운(禪雲)’에서 설법하였다. 이때의 ‘선운(禪雲)’은 현재 고창 아산면의 선운사(禪雲寺)로 비정되므로,⁴⁹⁾ 김제의 금산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지□가 이후 익산의 미륵사에서 탑을 세울 때에 선운사에서 선불장(選佛場) 행사에서 설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로 고창의 선운사가 선택되었을까. 개탑 의례가 있었던 미륵사가 자리한 익산은 만경강을 사이에 둔 수도 전주의 대안 지역이며, 그곳의 개탑 의례는 물론 미륵 신앙을 통치의 기반으로 이용하려 한 견훤의 의사를 뚜렷이 보여준다.⁵⁰⁾ 바로 그러한 행사가 집행될 때, 고창에서도 선불장을 연 것이다. 이는 고창 지역의 반감을 누르기 위해 공을 들여야 했던 후백제 정권의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무렵 후백제에서 선운사를 주목한 이유를 살펴려 한다면, 『문경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명(聞慶 鳳巖寺 靜眞大師 圓悟塔碑銘)』에서 보이는 정진대사(靜眞大師) 공양(競讓)의 귀국 기사에 눈을 돌릴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동광(同光) 2년(924) 7월 공양은 당시의 고부군에 속하고⁵¹⁾ 부안만에 위치하

48)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 “乾化甲戌春, 往牛頭山開禪寺, 謁悟心長老, 請歸佛. 長老嘉愛, 爲之薙染, 時年十六. 越三年, 就金山寺義靜律師戒壇受具. 於是, 戒珠明朗, 法器泓澄, 雅厭匏繫, 振衣遐舉, 博訪知識, 益究玄乘. 龍德二年夏, 特被彌勒寺開塔之恩, 仍赴禪雲選佛之場, 登壇說法時, 天花繽紛. 由是, 道響彌彰, 負笈者雲趨. 時新羅景哀大王, 請住芬皇寺, 賜紫羅屈眊梅香寶器等物. 天成四年, 敬順大王, 命師移住靈廟寺法席, 築戒壇, 飾佛塔, 設法會七日. 天福四年春, 我太祖大王, 欽師道德, 凡三徵不起. …”

49)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6쪽.

50)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92쪽.

51) 『삼국사기』 권36, 지리3 신라 전주(全州) 고부군(古阜郡) “古阜郡, … 領縣三. … 喜安

며 선운산의 대안에 존재하는 희안현(喜安縣, 현재 부안군 보안면)의 포구를 통해 귀국하였다.⁵²⁾ 이는 곧 후백제 시대 부안만 일대의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⁵³⁾ 후백제는 당시 나주를 점령당해 수군의 운용에 많은 제약을 겪었으므로, 곧바로 서해 방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장사현보다는 육지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비할 수 있었을 부안만 일대의 안정성에도 주목하였을 법하다.

현재의 고창군 흥덕면인, “영주(瀛洲)”⁵⁴⁾ 상질현(尙質縣)의 인물이었던 장유(張儒)의 행적 또한 좋은 단서가 된다. 1015년에 사망한 장연우(張延祐)의⁵⁵⁾ 부(父)인 그는 “신라 말”에 오월(吳越)로 피난하였다가 귀국하여 광종 대에 활동하였다고 하는데,⁵⁶⁾ 연대적으로 볼 때 장유가 후백제시기를 전후하여 활동했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으며,⁵⁷⁾ 다만 고려 정권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꺼려졌을 후백제시기를 “신라 말”로 표현하였을 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난(亂)”을 피해 오월로 향할 수 있었던 점은 상질현과 오월 사이에 항로가 성립하여 있었음을 대변하여 준다.

그렇다면 선운산 일대가 부각된 것은 이전의 장사현의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무렵 부안만에 인접한 상질현 일대를 중심으로 오월과 연결하며 부안만을 둘러싼 희안현 등의 포구를 연계시켜 이용하려 하던 후백제의 새로운 의도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 당시에는 장사현과 무송현이 무장현으로 합쳐진 이후 장사현의 옛 석성(石城) 터가 무장현(茂長縣)의 치소의 북쪽 20리에 있다고 하였고,⁵⁸⁾ 선운사로부터 직접 북쪽으로 연결되는 선운포나 선운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검단선사(黔丹禪師)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검단포가⁵⁹⁾ 북쪽 35리에 있었

縣, 本百濟欣良買縣, 景德王改名. 今保安縣.”

5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명(聞慶 鳳巖寺 靜眞大師 圓悟塔碑銘)』 “後唐同光二年(924)七月, 迴歸達于全州喜安縣浦口.”

53) 송화섭, 2016, 『후백제 건원 정권의 고부 경영과 해상교통』, 『全北史學』 49, 전북사학회, 69쪽 참고.

54) 고려 태조 19년(936) 고부에 영주관찰사를 둔 일이 기록에 보인다(『고려사』 권57, 지리2 전라도 고부군 “古阜郡 … 太祖十九年, 稱瀛州觀察使.”)

5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顯宗) 6년(1015) 11월 己巳 “戶部尙書張延祐卒.”

56) 『고려사』 권94, 열전7 제신(諸臣) 황보유의(皇甫俞義) 부록 연우(延祐) “延祐, 瀛州尙質縣人. 新羅末, 父儒, 避亂吳越, 後還國. 光宗以解華語, 累授客省, 每中國使至, 必使儒攢接之.”

57) 李道學, 2015, 『後百濟와 吳越國 交流에서의 新知見』, 『백제문화』 5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11-112쪽을 참고할 수 있다.

5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6,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고적(古跡) “古長沙. 【在今治北二十里, 有石城基.】”

다고 하는 것을⁶⁰⁾ 고려하면, 지극히 단출하게나마 이는 장사현에 대한 정책의 무게중심을 북쪽으로 대략 15리 남짓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법하다.

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견훤 정권에 의해 중용되었다. 후대의 일이지만 지□의 생애를 볼 때, 그는 고려의 인왕법회(仁王法會)·백고좌회(百高座會) 등을 주관한 일이 있고, 『대운륜경(大雲輪經)』을 이용한 기우 의례를 집전하였으며,⁶¹⁾ 수륙도량(水陸道場)의 정비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도 여겨진다.⁶²⁾ 따라서 대체로 그의 관심은 국가의 안위와 약자에 대한 구제 등에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그가 「방등산가」에서 보이듯 견훤의 북진 당시 있었던 약탈로 피해를 입었던 고창 지역을 위무하고 후백제의 통치가 자리 잡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섰다는 “선운의 선불장”은 계(戒)를 수여하고⁶³⁾ 승시(僧試)를 보았던 행사로⁶⁴⁾ 얼핏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후 “책 꾸러미를 지고 오는 사람이 구름처럼 치달았다[負笈者雲趨]”고 하므로 이로부터 지□가 고정적인 거소를 갖고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은, 역시 그가 그 직전에 이름을 날렸던 선운사일 것이다.

그 뒤 지□는 두 차례 신라 왕실의 부름을 받아 신라의 왕경으로 옮겨갔다. 일반적으로 지□가 경애왕의 요청으로 분황사로 먼저 옮겨간 뒤, 929년 경순왕의 요청으로 다시 영묘사로 옮겨갔다고 본다.⁶⁵⁾ 그런데 지□가 경애왕의 요청을 받은 “이때[時]”의 기사가 922년 선운산 설법 등의 기사와 인접해 있으므로 얼핏 922년 무렵 지□가 신라 왕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⁶⁶⁾ 일단 경애왕은 924년 8월 즉위해 927년 11월 사망하였으므로⁶⁷⁾ 두 시점을 같

59) 송화섭, 2018, 「高敞 禪雲寺 黔丹禪師의 文化史的 考察」, 『全北史學』 54, 전북사학회, 22-24쪽 참고. 검단선사(黔丹禪師)는 백제 위덕왕 24년(577) 선운사를 세웠다고 전해 지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파주 검단사(黔丹寺)의 창건 설화 및 『지봉유설(芝峯類說)』의 기술 등을 근거로 그를 진감선사(眞鑑禪師) 혜소(慧昭, 774~850)로 보는 견해가 있다(송화섭, 2018, 앞의 논문).

6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전라도 무장현 산천, “黔堂浦. 【在縣北三十五里.】 禪雲浦. 【在縣北三十五里.】”

61) 이러한 행사들은 신비한 분위기를 조영함으로써 민중의 호응을 얻으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8쪽).

62) 이와 같이 수륙도량을 설행한 목적은 당시 광종이 모색한 민심의 융합으로 여겨진다(金熙俊, 2001,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1쪽).

63) 張日圭, 2014, 앞의 논문, 117쪽.

64)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6쪽; 張日圭, 2014, 앞의 논문, 117쪽.

65)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6-587쪽; 崔洪奎, 1995, 앞의 논문, 199쪽; 金熙俊, 2001, 앞의 석사학위논문, 10쪽; 金성배, 2021, 앞의 논문, 99-101쪽.

66) 金성배, 2021, 앞의 논문, 99쪽.

은 시점으로 보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이를 즉위 이전의 경애왕의 요청으로 보거나 이 일의 시점이 924년 8월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우선 경애왕이 ‘동궁(東宮)’이나 ‘잠저(潛邸)’에 있었다고 하는 등 전자로 볼 명확한 문헌적 근거가 없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서 경애왕이 아직 즉위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그가 동광(同光) 2년(924) 2월 19일 선승(禪僧) 300명을 모아 황룡사(皇龍寺)에서 백좌설경(百座說經)을 하였다고 한 기사가 주목된다.⁶⁸⁾ 이 사건은 『삼국유사』에서 “백좌에서 최초로 선교(禪敎)를 함께 설법한 일[百座通說禪敎之始]”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며,⁶⁹⁾ 경애왕이 즉위 이전 세제(世弟)와 같은 지위에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자⁷⁰⁾ 당대의 정계에서 불교적인 사상의 통일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⁷¹⁾ 따라서 만일 922년의 시점에 지□가 분황사로 옮겨갔거나 924년 2월 19일 백고좌회 이전에, 또는 백고좌회를 계기로 지□가 초청 받았다면 이 사건이 비문에 언급되었을 법하나, 그런 흔적은 일절 없다.⁷²⁾ 그러한 점에서 일단 이 일을 백고좌회 이후, 나아가 경애왕이 즉위한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비문 내에 나타나는 여러 시점 중에서 유일하게 “이때[時]”라고 하여 시점이 가장 불분명한 것으로, 적어도 연 단위, 가능한 한 일자까지도 철저히 기재하였던 비명의 경향성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표 2>). 이는 이 기사가 별도의 출전으로부터 삽입된 이질적 자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탐비명의 작성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본래는 이때의 일이 비명의 원형이 되는 행장에⁷³⁾ 실리지 않았을 정도로 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거의 가져

67) 이에 준해 지□가 신라 왕경으로 옮겨갔을 것이라 추측하는 시기를 좁히기도 한다(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6-587쪽; 崔洪奎, 1995, 앞의 논문, 199쪽; 金壽泰, 2000, 앞의 글,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66쪽).

68)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경애왕(景哀王)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924)甲辰二月十九日, 皇龍寺說百座說經. 兼飯禪僧三百, 大王親行香致供. 此百座通說禪敎之始.”

69) 『삼국유사』 경애왕조 자체가 위 법회를 언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도 제출된 바 있다(박순교, 2022, 『景哀王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애왕 과거의 기록, 그리고 진실』, 지성인, 155-156쪽).

70) 박순교, 2022, 앞의 글, 앞의 책, 155쪽.

71) 申虎澈, 1989, 『新羅의 滅亡과 甄萱 - 甄萱이 신라멸망에 끼친 영향-』, 『忠北史學』 2, 忠北大學校 史學會, 25쪽.

72) 金壽泰는 이 사건이 지□가 신라 땅으로 옮겨가는 계기였을 것이라고 보았지만(金壽泰, 2000, 앞의 글,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66쪽) 상기한 이유로 따르지 않는다.

73) 신라 말~고려 초 탐비는 문도들이 중심이 되어 스승의 행장을 모아 국왕에게 주청하여 허락을 얻은 뒤에 건립되었다(엄기표, 2003, 『신라 승려들의 장례법』, 『신라와 고려시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표 2. 「해거국사비명」의 시점 서술 방식

시점	사건	시점	사건
당 광화(光化) 2년(899) 기미(己未) 4월 4일	지□ 탄생	건화(乾化) 연호를 쓴 갑술(甲戌, 914) 봄	구족계를 받음
용덕(龍德) 2년(922) 여름	미륵사 개탑 의례·선운사 설법	이때[時]	경애왕의 분황사 주석 요청 및 물품 하사
천성(天城) 4년(929)	경순왕의 명령으로 영묘사로 옮겨감·7일간 범회	천복(天福) 4년(939) 봄	고려 태조가 부르는 것을 세 번 거절
개운(開運) 4년(947) 가을	왕사 책봉·개경으로의 초청에 응함	같은 해 12월	정종과 접견
이듬해(948) 2월	홍화사(弘化寺) 전경법회·홍화사로 거쳐 옮김	광종대왕(光宗大王) 13년(962)	광명사(光明寺)로 옮겨감·인왕반야회(仁 王般若會) 등
(광종) 19년(968) 무진(戊辰) 정월	경운전(慶雲殿)에서 백고좌법회(百高座法 會)·『원각경(圓覺經)』 강설	같은 해 6월	송경전(崇景殿)에서 『대운륜경(大雲輪經)』 을 읽으며 기우 행사
개보(開寶) 3년(970) 경오(庚午) 봄	갈양사 건설 건의	이듬해 신미(辛未, 971)	갈양사 준공, 수륙도량(水陸道場) 개설 및 낙성식
임신(壬申, 972) 봄	국사에서 사임	(임신년) 3월 15일	광종의 연복사(演福寺) 행차, 재회(齋會)
다음 날	광종의 갈양사 방문, 물품과 휘호 등 사여	이 해 7월	표문을 올려 광종에게 사례
광종 25년(974) 갑술(甲戌) 2월 15일	유언을 남기고 입적	3월 8일	다비식
이 해 7월	시호 추증	우리 성상[成宗] 13년(994) 갑오(甲午) 가을	비명(碑銘)을 지음

시점이 불명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점의 기사에는 경애왕이 분황사로 옮겨올 것을 요청하고 선물을 증여하였다는 일방적인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기실 그에 반응하여 지□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 또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지□가 경애왕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신라 왕경으로 옮겨갈 만한 상

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61쪽 참고).

황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경명왕~경애왕 대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가 격돌하던 당시의 상황을 맞아 고려와 공수동맹(攻守同盟)이라 할 만한 관계를 맺었으며,⁷⁴⁾ 경애왕이 즉위할 무렵인 924년 7월 1차 조물성(曹物城) 전투 이후 고려에서 신라 측에 더 큰 부담을 지우도록 동맹을 조정하려는 요청까지도 끝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그 결과 경애왕은 927년 정월 3일, 고려군을 지원하며 후삼국시대의 신라 국왕 중 유일하게 후백제에 대해 출병하기도 하였다.⁷⁶⁾ 또한 924년 6월 문경의 봉암사에는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가 세워지기도 하였는데,⁷⁷⁾ 이 봉암사가 위치한 문경시 가은읍 지역은 곧 견훤의 고향인⁷⁸⁾ 가은현(加恩縣)이 위치한 곳이었다.⁷⁹⁾ 그의 부(父)라는 아자개(阿慈介)가 가은현의 상위 행정 구역인 상주(尙州)에서 장군(將軍)으로 자립했다고 한 점에 더해⁸⁰⁾ 그의 자(子)라는 견훤이 가은현에서 태어난 점으로 보아 가은현 또한 아자개의 세력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⁸¹⁾ 아자개는 918년 7월 고려 태조(太祖)에게 귀의한 바 있었다.⁸²⁾ 그렇다면 결국 「지증대사비」의 건립은 견훤의 고향에 신라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서 비상한 상징적

74) 특히 경명왕 4년(920) 정월의 사절 교환이 중요한 계기로 언급된다(조범환, 2018, 「신라 말 朴氏 王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새문사, 63쪽).

75)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선용, 2009, 「高麗太祖의 對新羅同盟 체결과 그 운영: 新羅 景明王·景哀王과의 交渉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 韓國古代史探究學會, 140-158쪽 참고.

7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927) 정월 3일조; 박순교, 2022, 「신라 경애왕(景哀王)의 「포석정 유행(遊幸)과 죽음」에 대한 시비」, 앞의 책, 104쪽.

77)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명(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銘)」, “龍德四年(924)歲次甲申 六月 日 竟建.”

78)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甄萱, 尙州加恩縣人也.”

79) 『삼국사기』 권34, 지리1 신라 상주(尙州) 고령군(古寧郡) “古寧郡, … 領縣三. 嘉善縣, 本加害縣, 景德王改名. 今加恩縣.” 지명 비정은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2012, 앞의 책, 188쪽의 각주 181) 참고.

80)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후백제 견훤 “父阿慈个以農自活, 光啓中據沙弗城【今尙州.】自稱將軍.”

81) 「지증대사비명」에 비를 건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보이는 소판(蘇判) 아질미(阿叱彌)에 대해 아자개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거나(김복순, 2016,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 - 「지증대사비명」의 건립을 중심으로 -」,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신라문화』, 경인문화사, 188-189쪽) 아자개의 직계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이도학, 2015, 「갈등의 이념적 충돌은?」, 『후백제 진흥 대왕』, 주류성, 533쪽; 이도학, 2016,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전과 尙州와 聞慶 지역 호족의 동향」, 『지역과 역사』 48, 부경역사연구소, 2016, 193쪽)가 제출되어 있다.

8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景明王) 2년(918) 7월 “尙州賊帥阿茲盖, 遣使降於太祖.”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고,⁸³⁾ 경애왕의 불교에 대한 정책 또한 그가 이어나 가던 고려와의 동맹의 일환이었던 것이다.⁸⁴⁾

경애왕이 지□에게 접근한 일은 따라서 단순한 호의라기보다는, 후백제를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차원에서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곧 과거에 신라 왕실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던 고창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지□에게 접근하여, 후백제의 지배력에 균열을 일으키도록 췌기를 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노골적인 시도를 후백제의 선불장에서 이름을 날림으로써 불교계에서 입지를 다졌을 지□가 받아들였을지, 또 그것을 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당시 완전한 후백제와 고려-신라의 대립 구도를 고려하면, 지□는 경애왕의 호의를 그저 문자 그대로의 호의로만 받아들이고, 요청에 상응해 분황사로 옮겨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그 반면에 분명한 지□의 활동이 보이는 것이 바로 929년 경순왕이 영묘사로 옮겨갈 것을 명령했다고 할 때이다. 이때 지□는 분명히 경순왕의 인사에 응하여 영묘사로 옮겨가고 범회를 열었다. 이 경순왕은 익히 알려져 있듯 견훤이 신라 왕경까지 진격해 경애왕을 제거하고 세운 왕이며,⁸⁵⁾ 930년 고창(古昌, 경상북도 안동시) 전투에서 견훤이 대파당하기⁸⁶⁾ 이전까지 견훤은 고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였다. 그 점을 고려할 때 경순왕이 지□를 불러들인 일은 경애왕 때와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곧 당시 경순왕이 고려보다는 후백제와 밀접하였으므로,⁸⁷⁾ 지□에게 이주하기를 주문한 것

83) 특히 비를 건립한 핵심 인물인 아질미의 직함으로 “서□대장군(西□大將軍)”이 보이는 것은 문경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신라 중심의 관점을 뚜렷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신라 왕실과 지방 세력이 봉암사를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짐작케 하는 자료로서(한기문, 2011, 「고려시대 봉암사와 회양산파의 추이」, 『佛敎研究』 34, 韓國佛敎研究院, 58쪽) 비문의 성격을 말해주는 실마리일 것이다.

84) 고려에서도 비를 세울 때 이후 귀부해 온 견훤을 맞이하였던 능선(能宣) 등의 인물이 참여하였고(김복순, 2016, 앞의 글, 앞의 책, 193-194쪽), 924년 6월 비의 건립을 비롯한 일대의 정비 사업을 통해 같은 해 7월 귀국한 궁양을 봉암사에 초치하려 했을 것으로 본 견해를(김복순, 2016, 「최치원의 「지증대사적조담비문」 비교 연구」, 앞의 책, 148쪽) 참고할 수 있다.

85)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927) “秋九月, 甄萱侵我軍於高壽府. 王請救於太祖, 命將出動兵一萬往救.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盡, … 乃立王之族弟權知國事, 是爲敬順王.”

8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3년(930) 정월 21일조.

87) 김부(金傅, 경순왕) 일파가 박씨 국왕인 경애왕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견훤을 이용하였다거나(조범환, 2018, 앞의 글, 앞의 책, 66-69쪽), 그들이 친후백제적인 세력으로서 경애왕과 대립하였다는 견해를(申虎澈, 1993, 「甄萱政權의 對外政策」, 앞의 책,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해거국사비명』의 내용에서도 금산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미륵사의 종교 활동에 연계하여 선운사에서 설법한 이후, 영묘사로 옮겨가는 데 어떠한 결심이나 사상적인 변화를 말하는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의 고민을 살피게 하는 것은 939년 태조가 부르는 것을 세 번에 걸쳐 사양하였다는 대목에서이다. 이는 물론 상투적인 겸양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앞서 살핀 시대적 배경과 함께 고려하면, 후백제에 협조적이었던 지□의 이전까지의 삶에 의해 후백제가 멸망하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 지□가 스스로의 안위에 불안을 느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⁸⁾

이러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변명’은, 『해거국사비명』에서 그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뒤 선운사로 옮겨가기 전에 “뒤옹박 신세가 되기를 몹시 꺼려 옷을 떨쳐 높이 일으켜서 널리 지식을 찾”았다고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기술 직후, 지□는 후백제의 선불장에서 이름을 날리며 후백제 정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된다. 비문이 고려가 통일을 이룬 이후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과거 ‘적대 세력’에 협조하였던 경력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으로 부드럽게 풀기 위한 문학적 완충 장치라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해거국사비명』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고창 일대는 대략 922~929년 동안 지□를 선운사에 머물게 한 견훤 정권이 공을 들여 관리한 지방임이 헤아려진다. 이 때문에 경애왕이 고창 지역과 연결하려는 시도 또한 차단되었고, 지□가 그곳을 떠나게 된 계기 또한 후백제의 전략적 동향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고창 지역에 대해서는, 장사현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의 구심점을 더 북쪽으로 옮기는 동시에 상질현·희안현 등 부안만 일대의 여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후백제에 의해 고창 일대에 일어난 변화의 그림자는,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이기는 하나, 고려 대의 지방 조직에도 뻗쳐 있었다고 여겨진다. 『삼국사기』 지리지들을 통해 보면, 앞서 언급하였듯 본래 현재의 고창군을 이루는 지역 가운데 고창현·장사현·무송현은 무령군, 상질현은 고부군에 속하

115-118쪽; 李明植, 2006, 『新羅末 朴氏王代の 전개와 没落』, 『大丘史學』 83, 大丘史學會, 39-51-52-61쪽; 박순교, 2022, 『‘景哀王의 죽음’과 견훤·왕건의 攻防』, 앞의 책, 239-246쪽) 참고할 수 있다.

88) 許興植, 1986, 앞의 글, 앞의 책, 587쪽에서 그가 이 시기 고려 태조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측한 바 있고, 崔洪奎, 1995, 앞의 논문, 199쪽에서 그 원인을 후백제·신라를 유력(遊歷)한 지□의 경력에서 찾은 바 있다.

는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 대에 들어서서는 고창현 또한 936년 영주관찰사(瀛州觀察使)가 두어진 고부군에 속하게 되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상질현의 이름을 바꾼 장덕현(章德縣)에 감무가 파견되어 고창현의 행정까지 겸하게 된다.⁸⁹⁾ 이와 같이 본래 서로 다른 상위 행정 구역에 속하던 고창현과 상질현(장덕현)이 긴밀히 연결되어 그 소속이 바뀌고, 또 그 중에서도 상질현(장덕현)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은, 부안만 일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부 지역과 고창 북부의 연결망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언뜻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지리지의 기사들 또한, 그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동하던 고창의 동향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방등산가」와 「혜거국사비명」이라는 두 자료를 통해, 후삼국시대 동안 고창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방등산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쾌히 해독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장성일 것이라고만 추측되어 왔던 ‘장일현’에 대해 군현의 위격 및 등장한 시대와 초서체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것이 장성군이 아닌 장사현과 관련된 일화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892년 무진주 점령 이후 900년 완산주 천도까지의 견훤의 북상 과정의 내면을 살펴볼 여지가 새로이 생기지 않았는가 한다.

또한 「혜거국사비명」에서는 정작 혜거국사 지□가 활동한 고창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미륵사 개탑 행사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의 선운사에서의 활동이 당시 후백제의 정책, 특히 오월과의 교통 등에 필요하였던 해로 교통의 차원에서 가질 의미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보았다. 그것은 그저 행정적이고 무정한 자료로 보이는 지리지의 기사와 함께 살펴볼 때 더욱 큰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이끌어 낼 법한 소재가 아닌가 한다.

구태여 부연하자면, 이 두 자료를 검토함으로부터 우리는 역사학의 ‘인간적

89) 『고려사』 권57, 지리2 전라도 고부군 “古阜郡 … 太祖十九年, 稱瀛州觀察使. … 屬郡一, 縣六. … 尙質縣, 本百濟上柒縣, 新羅景德王改今名, 來屬. 至高麗, 仍屬, 後更名章德【章一作昌】, 置監務, 兼任高敞. … 高敞縣, 本百濟毛良夫里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武靈郡領縣. 至高麗, 來屬, 後以尙質監務, 來兼.”

인' 면모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방등산가」라는 자료는 그 자체가 시대의 비극에 휘말린 여인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도 사람의 손을 타며 곡절을 겪은 모습을 이제는 여실히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해거국사비명」의 자료적 성격을 훑어보면, 그의 문도들이 그의 행적을 기술하면서 애써 지□의 약점을 가리려 한 노력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음도 헤아려진다. 그러한 자료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인간이 비출 수 있는 다면적인 면모에 대해 살피고 또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음을 체감한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나가는 지역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고창, 또 전북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부족하나마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3. 10. 10. / 심사개시일: 2023. 11. 27. / 게재확정일: 2023. 12. 15.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일본서기(日本書紀)』 『송탁순화각첩(宋拓淳化閣帖)』
 『무주 가지산 보림사 보조선사 영탑비명(武州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 靈塔碑銘)』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명(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銘)』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 편광영탑비명(康津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靈塔碑銘)』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비명(聞慶 鳳巖寺 靜眞大師 圓悟塔碑銘)』
 『수주부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 보광탑비명(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
 『태안 마도 2호선 0524-F4-목간』

2. 저서

-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고창군지』 (상), 고창: 고창군.
 구중희, 박동록, 이남규, 임운수, 정호완, 2017, 『스토리텔링 백제가요』, 서울: 서경문화사.
 金思燁, 1956, 『三國時代 文學』, 『改稿 國文學史』, 서울: 正音社.
 김복순, 2016, 『최치원의 역사인식과 신라문화』, 파주: 경인문화사.
 도수희, 2004, 『백제의 언어와 문학』, 서울: 주류성.
 无涯梁柱東博士 華誕 紀念論文集 發刊委員會, 『无涯梁柱東博士 華誕 紀念論文集』, 서울: 探求堂.
 박순교, 2022, 『경애왕 과거의 기록, 그리고 진실』, 서울: 지성인.
 白鐵·李秉岐, 1981(初出 1957), 『國文學全史』, 서울: 新丘文化社.
 申虎澈, 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서울: 一潮閣.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서울: 학연문화사.
 尹榮玉, 1980, 『新羅詩歌의 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이도학, 2015, 『후백제 진훤 대왕』, 서울: 주류성.

- 長城郡史編纂委員會, 2001, 『長城郡史』, 장성: 장성군사편찬위원회.
- 정구복, 노중국, 신동하, 김태식, 권덕영 주석, 2012,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趙東一, 1982, 『한국문학통사』 1, 서울: 지식산업사.
- 曹凡煥, 2008,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 조범환, 2018,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서울: 새문사.
- 趙潤濟, 1958, 『韓國詩歌史綱(訂正版)』, 서울: 乙酉文化社.
- 趙潤濟, 1987, 『韓國文學史』(3판), 서울: 探究堂.
-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서울: 푸른역사.
- 趙載勳, 1996, 『韓國詩歌의 通時的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2000, 『후백제와 건훤』, 서울: 서경문화사.
- 許興植, 1986,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 末松保和, 1954, 『新羅史의 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3. 논문

- 김성배, 2021, 「後百濟 건훤정권의 禪僧 정책」, 『全北學研究』 4집, 79-107쪽.
- 김성배, 2022, 「高麗 건국기 太祖 王建의 禪僧 結연과 그 목적-王建과 迴微·慶猷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42집, 605-647쪽.
- 金壽泰, 1999,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5집, 269-293쪽.
- 서금석, 이성원, 2013, 「『高麗史』 『樂志』에서 보이는 諸 女人相」, 『역사학연구』 51집, 33-70쪽.
- 송화섭, 2016, 「후백제 건훤 정권의 고부 경영과 해상교통」, 『全北史學』 49집, 61-92쪽.
- 송화섭, 2018, 「高敞 禪雲寺 黔丹禪師의 文化史的 考察」, 『全北史學』 54집, 5-44쪽.
- 申虎澈, 1989, 「新羅의 滅亡과 甄萱-甄萱이 신라멸망에 끼친 영향-」, 『忠北史學』 2집, 13-41쪽.
- 신호철,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4집, 5-29쪽.
- 安東柱, 1998, 「百濟 辭不傳 歌謠 研究」, 『古詩歌研究』 5집, 331-353쪽.
- 李道學, 2014, 「後百濟의 全州 遷都와 彌勒寺 開塔」, 『한국사연구』 165집, 1-30쪽.
- 李道學, 2015, 「後百濟와 吳越國 交流에서의 新知見」, 『백제문화』 53집, 101-116쪽.

- 이도학, 2016,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전과 尙州와 聞慶 지역 호족의 동향」, 『지역과 역사』 48집, 171-203쪽.
- 李明植, 2006, 「新羅末 朴氏王代の 전개와 沒落」, 『大丘史學』 83집, 39-65쪽.
- 李文基, 1992, 「九州體制의 成立과 變遷」, 『國史館論叢』 20집, 1-35쪽.
- 張日圭, 2014,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韓國古代史研究』 74집, 107-140쪽.
- 장지연, 2017,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속악(俗樂) 편집의 특징과 정치성」, 『국문학연구』 35집, 121-146쪽.
- 趙載勳, 1971, 「百濟歌謠의 研究」, 『百濟文化』 5집, 7-38쪽.
- 정선용, 2009, 「高麗太祖의 對新羅同盟 체결과 그 운영: 新羅 景明王·景哀王과의 交涉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3집, 121-168쪽.
- 정선용, 2023, 「신라 헌안왕의 가지산사 운영과 그 성격」, 『韓國古代史探究』 43집, 107-144쪽.
- 조인성, 2018, 「통일에서 분열로-후백제의 성립 배경과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2집, 1-31쪽.
- 진정환, 2010,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집, 157-188쪽.
- 진정환, 2021, 「후백제 주도 세력의 변화와 그 영향」, 『新羅史學報』 51집, 47-75쪽.
- 崔炳憲, 1975,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집, 1-26쪽.
- 崔聖銀, 1997,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益山 王宮里 五層石塔출토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집, 1-24쪽.
- 崔洪奎, 1995, 「高麗時代 水原地方의 金石文」, 『鄉土史研究』 7집, 195-206쪽.
- 한기문, 2011, 「고려시대 봉암사와 회양산과의 추이」, 『佛敎研究』 34집, 51-82쪽.
- 安東柱, 1992, 「百濟文學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金熙俊, 2001,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4.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db.history.go.kr/> (검색일: 2023.12.10.)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s://nanet.go.kr/> (검색일: 2023.12.10.)

OpenStreetMap 재단, <https://openstreetmap.org/> (검색일: 2023.12.10.)

<Abstract>

Gochang(高敞) Region in the Later Three Kingdom Epoch

On the Cross Point of the Tradition and New Age

Yun, Taeyang

I tried to reveal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Gochang(高敞) region in the Late Three Kingdom Epoch(後三國時代) by reviewing “The Song of Bangdeungsan”(方等山歌) and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of the Precious Light for the National Preceptor Hyegeo in the Galyangsa Temple at the Hwasan mountain of Suju Operational County(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碑銘). Comparing those two, the former seems to show the earlier situation. The song formerly used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secular music(俗樂) of Baekje. Furthermore, ‘Jangil Prefecture(長日縣)’ in the background narrative of the song was guessed as Jangseong county(長城郡). However, the Chinese character ‘日’ looks similar to the character ‘沙’ in the form of cursive calligraphy, so we can guess that the original notation was ‘Jangsa Prefecture(長沙縣).’ Considering the time when the regional names appeared and the rank of the prefecture and county, this supposition gets more persuasive. Reviewing the song in light of this, this song shows the situation after 892, when Gyeonhwon(甄萱) advanced north after capturing Mujinju Province(武珍州) and Gochang region fought against his forces.

After that, on the inscription of the Stele, we can find the activity of Ji□ the National Preceptor Hyegeo(惠居國師 智□) on the Buddhist Examination(選佛場) in 922 at Seonunsa Temple(禪雲寺). This fact can be estimated as a result of the endeavor to connect Jangsa prefecture with regions around the Buan Gulf. Meanwhile, I disagree with the former research, which says that Ji□ moved to the Silla as a reaction to King Gyeongae(景哀王)’s request, considering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Therefore, I estimate that Ji□ remained in Seonunsa Temple from 922 to 929.

The effort by the Later Baekje regime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regions around the Buan Gulf cast its shadow on the regional society even under the Goryeo dynasty: Gochang prefecture came to belong to Gobu County(古阜

* None

郡). Furthermore, Gammu(監務) of Jangdeok Prefecture(章德縣) under Gobu county also administrated Gochang prefecture concurrently after the Mid-Goryeo period.

Key Words : Gochang Region(高敞), “The Song of Bangdeungsan”(方等山歌),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of the Precious Light for the National Preceptor Hyegeo in the Galyangsa Temple at the Hwasan Mountain of Suwon Operational County(水州府 花山 葛陽寺 惠居國師 寶光塔 碑銘), Later Baekje(後百濟), Ji□ the National Preceptor Hyegeo(惠居國師 智□), Seonunsa Temple(禪雲寺)